

산수오거리~원효사~서석대 11.2km

# 무등산 옛길 복원한다

### 친환경 정비... 주말 등산객 분산 효과

등산객들의 추억과 발자취가 어린 무등산 옛 길에 복원된다.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오는 4월말까지 산수오거리~원효사~서석대(11.2km) 간 단절된 옛길을 복원, 연결하는 '무등산공원 옛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복원되는 길은 사업 구간 11.2km 가운데 기존 등산로를 제외하고 현재 단절돼 있는 무등산 자갈계, 동문터, 청풍쉼터, 화암마을 인근 등산로 등 2.8km에 달한다.

이 사업은 무등산을 찾는 주말 등산객(평균 2만명)의 75%인 1만5천 명이 중심사 구간에 편중돼 자연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추진된다. 아울러 무등산 옛 정취를 되살리는 한편,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무등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우선 산수동에서 청풍쉼터와 충장사를 거쳐 원효사(7.2km) 구간에서 옛길을 찾아 연결하고 원효사에서 충장궁 유적지를 거쳐 서석대(4

km)는 기존 옛길을 정비해 탐방로로 개방할 예정이다.

옛길은 수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 지형을 이용해 조성하며 옛길을 쉽게 알 수 있도록 53개소에 표지표와 이정표 등을 설치한다.

시는 또 자연공원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산수오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원효사까지 걸어서 탐방할 수 있도록 200m마다 안내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등산 편의를 위해 시민들이 기존 1187번 시내버스 외에 87번(청풍쉼터), 187번(충장사) 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를 설치할 예정이다.

무등산공원사무소 임희진 소장은 "옛길이 조성되면 중심사 지구에 집중되는 탐방객을 분산시켜 무등산 자연생태계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무등산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2분 / 해질 18시 46분 / 달출 04시 31분 / 달질 15시 29분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구분	구름	기온
광주	구름 조금	2/12℃
목포	구름 많음	2/9℃
여수	구름 조금	5/11℃
완도	구름 많음	3/10℃
구례	구름 조금	0/12℃
해남	구름 많음	2/10℃
장흥	구름 많음	1/11℃
강진	구름 조금	2/13℃
영광	구름 조금	3/13℃
진도	구름 조금	0/8℃
전주	구름 많음	3/10℃
전남	구름 조금	1/11℃
남원	구름 조금	-1/13℃
육산도	구름 많음	3/6℃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5~4.0m	목포 12:27	05:2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2.0~4.0m	여수 07:35	17:59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1.5~3.0m	여수 19:32	00:58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13:38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0/10	-1/8	-1/11	0/11	1/12	2/13

## 휴대전화 위치추적 40대 목숨 구했다

### "남편이 자살 시도" 신고 전화 받고 출동

### 보성 북내지구대원들 야산 뒤져 찾아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온 40대 가장이 가족들과 전화 통화를 한 뒤 고항에 내려와 자살을 기도, 혼수상태에 빠졌으나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을 받은 경찰과 소방서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

22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31분께 "자살 기도자로 신고된 김모(41)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보성군 문덕면 일대에서 잡힌다"는 소방서의 수사의뢰가 북내지구대에 접수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북내지구대 소속 전민수(33) 경장 등 4명은 순찰차 2대를 동원해 인근 지역에 대한 긴급 수색에 나섰다. 전 경

장 등은 휴대전화 신호발신지 인근의 반경 5km를 샅샅이 뒤진 결과 수색 50여분 만에 문덕면 오동마을 인근 야산에서 김씨의 무소 차량을 찾아냈다.

발견 당시 김씨는 차량에 시동을 건 채 운전석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으며, 조수석 뒷자리 유리창에는 3m 가량의 주방용 주름 끈이 배기구와 연결돼 있었다.

이를 본 김 경장은 자신이 갖고 있던 38구경 권총 손잡이를 이용해 차량 유리창을 깨고 차문을 열어 김씨를 빼낸 뒤 119구조대에 신고, 목숨을 구해냈다.

경찰조사 결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씨는 최근 가족간 문제로 심

적 고통을 겪어오던 중 자신이 태어난 문덕면으로 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광주 모 종합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으며, 22일 오전 병실을 찾은 김 경장에게 "너무나 고맙다"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김 경장은 "발견 당시 김씨는 차량 배기구를 통해 들어온 이산화탄소에 질식사해 의식이 없었다"며 "차량이 발견된 곳이 논로를 통해 이동해야 하는 외진 곳이었어서 하마터면 큰 일 날 뻔 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부인 A씨(35)는 "남편이 오후 7시에 집에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이젠 집에 못 들어가겠다'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겨 119에 신고했다"며 "남편이 의식을 찾은 뒤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며 담당 경찰관에게 고맙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차도·보도 불분명 폭 6m 미만 도로 사망사고 많다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차도와 보도 구분이 불분명한 폭 6m 미만의 집 앞 생활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2일 서울, 부산 등 7대 대도시에서 2003년 이후 5년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사망자 1천559명 중에 폭 6m 미만 도로에서 사망한 경우가 680명(46.2%)에 달했다.

특히 3~6m 도로의 사망자 수가 380명(24.2%)으로 가장 많았고 9m 미만은 216명(13.9%), 13m미만 173명(11.2%), 20m미만 198명(12.8%), 20m이상 216명(13.9%)이었다.

사망자 중 절반 가량이 770명(49.6%)은 보행 중에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옛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건물이 리모델링을 거쳐 인터넷 카페와 댄스연습실, 동아리방, 북카페 등을 갖춘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새 단장했다. /위지량기자 jwi@kwangju.co.kr

## 옛 국정원 광주지부 건물 시민 품으로

## '청소년 문화의 집' 새 단장

광주시 서구 화정동 옛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광주지부 건물이 '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광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식이 23일 박광태 광주시장과 최영태 광주흥사단회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와 청소년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는 지난해 7월 옛 국정원 부지와 건물을 17억원에 들여 사들인 뒤 최근 리모델링 작업을 마쳤다.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737㎡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집은 1층에 인터넷 카페와 관리사무실, 2층에 댄스 연습실, 음악학동실, 동아리방, 3층에 북카페, 문화미디어실 등으로 꾸며졌다.

문화의 집은 청소년 활동 전문단체인 광주흥사단이 운영을 맡아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한편, 옛 국정원 광주지부 건물은 1972년 건립 후 권위주의 시대로 인권탄압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인식돼왔다. 광주시는 지난 2002년 지부가 이전함에 따라 건물과 부지를 사들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반짝 추위'

### 전남 동부 내륙지방 '한파주의보'

지난 주말 촉촉한 봄비가 내리면서 3월 넷째 주(23일~29일)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고 '반짝 추위'도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2일 오후 4시를 기해 곡성, 보성, 순천 등 전남·북 동부 내륙 지방 11개 시·군에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3일 광주·전남 지역은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며 "아침 최저기온은 0도~5도까지 떨어져 다소 쌀쌀

할 것이며, 낮 최고기온은 9도~13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오전 남해서부(여수·광양 등)와 서해남부(목포·진도 등)에 발효된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는 23일 오전·오후를 기해 모두 해제될 전망이다.

이로써 지난주와 같은 '초여름 날씨'는 물러가고 평년기온을 되찾겠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2도, 낮 기온은 7도~12도 분포를 보이겠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 장애 자녀 키우는 엄마들

## 인권강사로 나선다

장애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인권강사로 나선다.

광주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광주에 거주하는 장애 자녀를 둔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시 여성발전기금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오는 25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7월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을 마친 여성들은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생들과 지역 시민사회 단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장애 공동교육을 실시하는 인권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문의는 광주장애인연대부모(062-523-4982)나 광주여성청소년정책관실(062-613-2274)로 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38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 종합여행기업

# 롯데관광

LOTTE TOUR.com

☎ 1577-3000

광주지사: 062-226-2601

광주서구점 062-383-1133 | 광주월남점 062-974-3050  
 순천점 061-755-7114 | 목포점 061-244-5882  
 익산점 063-843-3800 | 전주롯데점 063-289-2855  
 광주롯데점 062-227-5310 | 전주시창점 063-282-3210

가래한 내용은 www.LOTTETOUR.com 참조하십시오

## 창립38주년 기념 & 5월 가정의 달 Event

EVENT 1 38주년 통강네기 이벤트 | EVENT 2 (가족) 가족의 사랑 확인하기  
 EVENT 2 후부모님에 사랑의 편지 전달하기 | EVENT 4 자녀 여행가고 영어 공부하고~

### 무안 출발 롯데관광 38주년 & 광주지사 OPEN 2주년 기념 고객감사 특별전

**무안 N5** 광주·순천·함평·상해, 항주, 서당 4일

₩349,000 (1인) ▶ 4인 ₩1,362,270

상해, 항주, 삼청산, 황산(醉은천) 5일

₩729,000 (1인) ▶ 4인 ₩2,916,000

상해, 장가계(원가계), 소주 5일

₩799,000 (1인) ▶ 4인 ₩3,196,270

**북경** 북경, 만리장성 4일 ₩399,000 (1인)

북경, 만리장성 4일 ₩399,000 (1인)

북경, 만리장성 4일 ₩399,000 (1인)

북경, 만리장성 4일 ₩399,000 (1인)

**5년 황금연휴 특선상품**

북경, 만리장성 4일 ₩549,000 (1인)

상해, 항주, 삼청산, 황산(醉은천) 5일 ₩799,000 (1인)

대만, 화련, 아류, 지우펀 4일 ₩899,000 (1인)

푸켓 특급리조트 5일 ₩1,199,000 (1인)